

플라스틱산업, 노동생산성 낙제점!

산자부-생산성본부, 단위노동비 연평균 13.1% 증가 ... 임금부담 가중

노동생산성에 비해 시간당 명목임금이 크게 증가하면서 제조업의 비용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크스·석유정제업종의 노동생산성은 1999-2002년평균 6.4%로 비교적 높게 증가한 반면, 고무·플라스틱업종은 오히려 4.0% 감소율을 보여 업종 간의 효율성 차이가 뚜렷이 드러났다.

산업자원부와 한국생산성본부가 발표한 <분기별 노동생산성 통계>에 따르면, 1999년부터 2002년까지 4년 동안 제조업의 노동생산성은 2000년을 지수 100으로 했을 때 연평균 증가율이 5.5%, 시간당 임금 상승률은 10.4%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노동생산성을 시간당 임금으로 나눈 단위노동비용은 연평균 4.7% 증가해 생산효율에 비해 기업들의 임금부담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노동생산성 증가 추이는 2000년 전년대비 9.1%, 2001년 -0.7%, 2002년 8.2%였으며, 시간당 임금은 매년 10%의 높은 증가율 속에 2002년에는 13.2%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산출(생산량) 증가율은 2000년 17.1%, 2001년 0.9%, 2002년 7.3%로 연평균 8.2% 증가했으나 노동투입량은 근로시간의 지속적인 감소와 근로자수 증가율의 둔화로 연평균 2.6% 늘어나는 데 그쳤고 2002년에는 오히려 전년보다 0.8% 감소했다.

노동생산성은 1999-2002년 사무기계, 영상, 음향기기업종이 연평균 10% 증가율을 기록한 반면, 가구·기타 제조(-5%), 고무·플라스틱(-4%)은 감소세를 보였다.

특히, 코크스·석유정제업종의 시간당 명목임금은 연평균 8.1% 증가하고 단위노동비용은 1.6% 증가에 그치면서 노동생산성이 6.4% 비교적 높게 증가했지만, 고무·플라스틱업종은 시간당 명목임금 8.5% 증가에 단위노동비용도 10.2% 증가하면서 노동생산성은 -4.0%를 나타냈다.

제조업 노동생산성 동향(1999-2002)

구 분	섬 유		코크스/석유정제		화합물		고무/플라스틱		사무기계	
	지 수	증감률	지 수	증감률	지 수	증감률	지 수	증감률	지 수	증감률
1999	103.6		98.9		91.2		102.5		59.6	
2000	100.0	▽3.4	100.0	1.1	100.0	9.6	100.0	▽2.4	100.0	67.7
2001	95.6	▽4.4	106.3	6.3	94.7	▽5.3	91.3	▽8.7	101.7	1.7
2002	99.6	4.2	119.1	12.1	100.1	5.8	90.6	▽0.8	105.0	3.2

† 노동생산성=통계청 산업생산지수/노동투입량지수(근로자수*근로시간), 2000년을 100으로 지수화

한편, 전체 업종별 노동생산성 증가율의 표준편차는 5.66, 시간당 임금상승율의 표준편차는 2.39를 기록해 임금상승 과정에서 업종별 특성과 생산성 수준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채 제조업 전체적으로 일률적인 임금인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산자부는 "2000년 이후 임금 증가율이 생산성 증가율을 상회하는 것은 외환위기 이후 억눌렸던 임금인상 요구 때문이지만 현재 추세가 계속된다면 국내산업은 비용경쟁력이 크게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한국생산성본부 산하에 <생산성혁신센터>를 설립하고 생산성과 연계한 합리적인 임금제도를 마련해 2004년부터 기업들에게 제공키로 했다. <조인경 기자>

<Chemical Journal 2003/06/23>